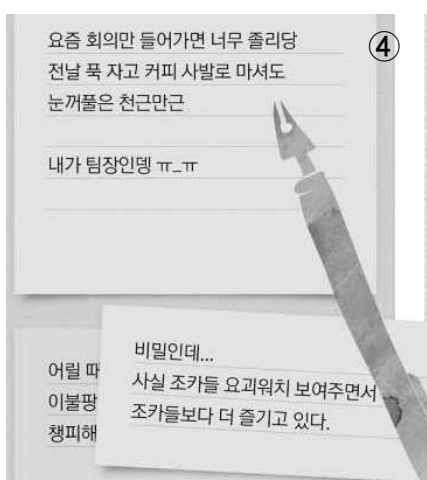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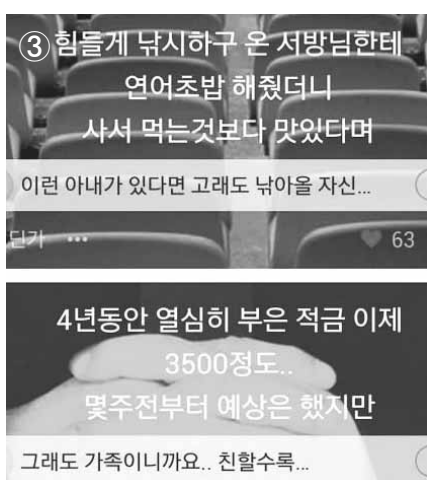


# 실명 피로감에... 익명 SNS로 돌아간다



같은 회사 직원끼리 익명으로 활동하는 앱 '블라인드' (1, 2)와 '어라운드' (3), '두리번' (4). 사용자들은 이들 앱에서 솔직한 생각을 드러내며 일상의 피로를 풀고 있다.

## 회사스트레스 풀고 솔직 대화 직장인 게시판 1000개사 넘어 '두산 20대 명퇴' 논란 발단도

취업준비생 박창윤(29·광주시 남구 노대동)씨는 최근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을 삭제했다. 대신 '힐링' 앱을 하나 내려받았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이미지와 함께 따뜻한 글을 올리거나,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답했던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다. 음식 사진 등을 SNS에 올리며 '자랑질'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던 그녀.

박씨는 "좋은 직장 구하고 애인도 만들고, 이른바 '멕스타그램'까지 하는 친구들의 일상을 보면 괜히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다"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내 이야기 같아 위안을 느낀다"고 말했다.

뒤에 숨어 욕설·음담패설을 내뿜는 등 인터넷상 '익명'이라는 이미지는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일상이 공개되는 '실명' SNS에 질린 사람들이 '익명'을 택하고 있다.

스마트폰 SNS 앱 '어라운드'와 '모씨', '센티', '두리번' 등은 대표적인 익명 앱이자 '힐링 앱'이다.

익명으로 글을 남기면 다른 사용자들도 익명으로 댓글이나, 하트 등 공감을 표시한다. 자신의 연애사부터 가족사, 직장에서 겪는 갈등 등 가감 없이 표현하고 공유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한다. 주로 따뜻한 이미지를 담은 사진과 위안을 주는 메시지가 '카드' 형태로 올라온다.

이들이 '실명'에 질려하는 이유는 바로 '자랑질'이다. "나는 잘 먹고 잘살고 있다" 등 '자랑질 콘텐츠'가 SNS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이다.

심지어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다.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대표적인

SNS 앱을 통해 엿보는 지인들의 행복한 삶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대표적인 익명 커뮤니케이션 앱 '어라운드'는 2014년 말 서비스를 시작했다. 출시 첫 달 2만명에 불과했던 사용자는 현재 70만명에 육박한다. 지난해 8월에는 소프트뱅크벤처스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지나친 비교의식으로 심리적 피로감이 큰 현대 사회에서 진심을 담은 소통의 공간으로 사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구글플레이스토어 평점 4.9점(5.0 만점)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개설된 '모씨'도 현재 이용자 150만명을 확보한 상태다.

따뜻함을 품고 있는 익명 SNS 인기의 원인이 아니다. 뒷담화용 SNS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직장인 전용 익명 SNS '블라인드'는 특정 회사 소속임을 인증받은 뒤에야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자신의 회사게시판과 같은 업종게시판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물론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것은 알아도 실제 누구인지는 모른다. 현재 블라인드에는 1000개 이상 회사게시판이 개설돼 있다. 30여명의 사용자가 모여 회사게시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사용자만 3만명을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게시판에서는 평소 회사에서 말하지 못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온다. 블라인드가 첫 유명세를 탄 건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땡땡' 회향 사건 때다.

당시 '조현아 부사장이 마카다미아 때문에 비행기를 세웠다'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그걸 다른 사용자가 퍼뜨렸다. 이후 언론 보도가 이뤄지며 이슈가 됐다. 지난해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을 강요해 논란이 일었던 두산인프라코어역시 블라인드가 그 진원지다.

SNS소통연구소 이성구 소장은 "우리나라는 유독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이 심한데다, 댓글이나 '좋아요'에 집착하면서 누적된 피로감도 상당하다"며 "당분간 익명 SNS 앱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 게임 '달빛도적단' 콘텐츠 다양해졌어요

인터세이브(대표 이갑형)는 24일 자사의 온라인게임 '루나 : 달빛도적단'의 첫 콘텐츠 업데이트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정식오픈 서비스를 시작한 '루나 : 달빛도적단'은 이용자들을 위해 최고 레벨 사냥터 '아우토리 고원'을 새롭게 추가했다. 레벨도 55까지 상향시켰다.

'아우토리 고원'은 각 지역별 특정 몬스터를 일정 이상 처리하면 강력한 보스급 몬스터가 나타나 짜릿한 필드전까지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보스급 몬스터가 서식하는 인스턴트 던전도 총 3개가 있다.

이날 인스턴트 던전 한 곳을 오픈하고 다음달 2일까지 2곳의 던전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인터세이브 이갑형 대표는 "'루나 : 달빛도적단' 이용자들의 캐릭터 성장속도를 고려해 재미를 더해줄 콘텐츠를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재밌는 게임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루나 : 달빛도적단' 업데이트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luna.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세이브 이갑형 대표는 "'루나 : 달빛도적단'은 각 지역별 특정 몬스터를 일정 이상 처리하면 강력한 보스급 몬스터가 나타나 짜릿한 필드전까지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보스급 몬스터가 서식하는 인스턴트 던전도 총 3개가 있다.



'루나 : 달빛도적단' 업데이트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luna.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세이브 이갑형 대표는 "'루나 : 달빛도적단'은 각 지역별 특정 몬스터를 일정 이상 처리하면 강력한 보스급 몬스터가 나타나 짜릿한 필드전까지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보스급 몬스터가 서식하는 인스턴트 던전도 총 3개가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애플 상점 앞에서 한 경찰관이 미 연방수사국(FBI)이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시한의 자유를 위협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제안한 대로 첩보·IT기술·시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광범위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이메일은 전날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정부가 요청한 것은 마스터 키가 아니라 수사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문인 셈이다.

FBI와 애플 간 갈등을 둘러싸고 공화당 대선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애플은 (테러범 정보를) 넘겨야 한다. 애플이 승복할 때까지 애플의 모든 제품을 준수하는 수억 명의 데이터 안전과

이번 이메일은 전날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정부가 요청한 것은 마스터 키가 아니라 수사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문인 셈이다.

FBI와 애플 간 갈등을 둘러싸고 공화당 대선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애플은 (테러범 정보를) 넘겨야 한다. 애플이 승복할 때까지 애플의 모든 제품을 준수하는 수억 명의 데이터 안전과

## 이통사 '재고떨이'로 스마트폰 장만해볼까

삼성·LG 신제품 공개 따라

최근 삼성과 LG가 나란히 공개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7'과 'G5'의 출시를 앞두고 구형 모델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모바일전 사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된 제품이 약 1개월 뒤 국내시장에 판

매되는 점을 고려하면 '갤럭시S7'과 'G5'는 이르면 3월 중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통통신사들은 구형 모델의 출고가를 대폭 낮추거나, 공시지원금을 대폭 올리는 등 재고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LGU+가 이날부터 온라인에서 광대역 LTE-A 갤럭시S5 단말기를 선착순 100명

에게 5239원(59.9 요금제 기준)에 제공기로 한 것도 신규 모델 출시를 앞둔 재고 처리로 풀이된다.

서울역 한 이통통신 직원 관계자는 "상당수 소비자들은 다음 달 갤럭시S7과 G5 출시가 임박해 S6, G4 등 구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델의 가격이 조정되는 시점을 기다리며 스마트폰 구입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형 스마트폰 출시를 기다리며 구입을 미루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판매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졸업·입학시즌에도 예년에 비해 수요가 적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관계자는 "아마 다음 달로 접어들면 신형 전략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구형 단말기를 처리하기 위한 통신사의 '재고 떨이' 경쟁도 본격화 될 것"이라며 "스마트폰을 구입은 다음달 초나 중순이 적기"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신축상가 원룸 매매(전대정문)

**전대 후문/복구청 주차장 2분!** (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아아파트 후문앞 코너)

**임대완료**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 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 주인직매) 010-6670-9800 010-7384-7800

### 첨단지구 8층 상가, 오피스텔 매매

**광주 최초 (연구소 및 상가 전문 건물)**

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경치좋음)

□ 감정가 (분할등기시) → 56억  
□ 용자 → 31억 가능  
□ 매가 → 38억

010 - 6834 - 4800      010 - 6832 - 9700